

퇴직 후 심리적 위기 중년남성의 대학원 학습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과정 탐색*

이미섭(숭실대학교 박사졸업)*

최은수(숭실대학교, 교수)‡

요약

본 연구는 퇴직이라는 전환기 사건을 경험한 심리적 위기의 중년남성이 대학원 학습을 통하여 셀프리더십을 개발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50~59세의 퇴직 후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졸업한 7명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남성은 평소 퇴직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퇴직 후에 대한 준비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예기치 못한 채 퇴직에 직면하면서 감당 할 수 없는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바라봄과 깨달음의 시간을 통해 '자기재생에 대한 갈망과 도전'으로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대학원 학위과정을 선택하였다. 고령자를 받아 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 경제적 어려움과 타인의 부정적 인식과 같은 학습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습을 통하여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며 정신적으로 치유되었으며, 물리적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기확신을 다짐하였다. 또한 외적 동기로 시작한 학습이 내적 성장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셀프리더십을 개발하였다. 대학원 학습을 통해 드러나는 셀프리더십의 특징은 제2의 인생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담금질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통제와 자기관리를 하며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다. 긍정의 자기암시를 통해 신념을 다짐하며 배움과 확장으로 자기확신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역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중년남성, 퇴직 후 심리적 위기, 대학원 학습, 셀프리더십

I. 서론

퇴직은 중년남성 대부분이 경험하는 생애의 과도기적 사건이다. 사실상 일터에서 분리되

* 본 연구는 2015년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이미섭(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mshong91@naver.com)

‡ 교신저자: 최은수(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eschoi@ssu.ac.kr)

는 퇴직의 의미는 중년남성의 정체성을 빼앗아 그들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Mattern, 1993).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년남성이 퇴직 후 갖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면서 퇴직은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퇴직 평균연령은 53세(희망퇴직은 60세)로(통계청 2013),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안하면(채성오, 2013), 퇴직에 대한 중년남성의 수용과 적응 문제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및 사회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년남성을 다룬 연구는 중년여성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중년남성을 다룬 연구에서도 대부분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 등과 같은 몇 가지 한정된 영역만 다루는 것(고기숙, 2003)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중년의 위기에 관한 인식이나 고찰에 관한 일반적 연구(송동립, 2004; 최태산, 박혜경, 2011; Bryant, 2008), 퇴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함에 관한 연구(한혜경, 2003; Lim, 2009; Osborne, 2012), 은퇴에 관한 유형 연구(고화정, 2013; 꺾인숙, 홍성희, 이경희, 2007)로 이루어져 있다.

퇴직으로 인한 위기감을 극복한 중년남성에 관한 경험, 과정, 결과에 대해 역동성과 내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퇴직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경제적 생산성을 배제하고 여가와 같은 역할 없는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Tsao, 2003)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퇴직은 가치 있는 직업 역할을 포기하고 이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Mattern, 1993). 퇴직에 관한 적응은 중년기 개인의 중요한 과제로서 성공 여부에 따라 중년남성의 후반기 인생의 존재 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다(Andrew, 1996).

최근 주목할 만한 점은 중년기의 대학원 진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찾아 혹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려는 중년 학습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대학의 석·박사 과정 중인 50대 학생의 수는 11,352명으로 2005년 3,404명에서 4배가량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2011). 대학원 학습과정이 주는 의의는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그 충격을 완화하여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며, 전문성을 높여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하며, 중년기 삶의 핵심요소가 되어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퇴직 후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중년남성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학습목표, 동기,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대학원 학습과정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재조정이 필요하다. 중년남성이 이처럼 막연하고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가 위기를 기회로 또는 도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중년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도전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으로

셀프리더십이 요구된다 하겠다.

셀프리더십이란 자기통제에 근간을 두고 자기자신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으로서(Neck & Houghton, 2006) 모든 사람에게 잠재된 능력이며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학습자에게 높은 수준의 독립성, 자기신뢰와 독립성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면서 셀프리더십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성계순, 2011). 중년남성은 대학원 학습경험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영향력을 자신의 내면에서 이끌어 내는 셀프리더십 개발과정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년과 관계된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주로 대학생 관련 연구(홍아정, 2009; James, 2009)나 조직구성원과 관련된 연구(김연선, 2009; 박동수, 이희영, 2002; 하순복, 2007; Manz, 1992; Neck, Stewart, & Manz, 1995)에 국한되어 있다. 셀프리더십 및 심리적 위기와 관련된 연구(김신, 2012; 이용엽, 2012; Aspnes, 2008)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학습과 관련하여 셀프리더십의 개발이나 변화과정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평생교육학 측면에서 전환기 삶의 상태에 있는 중년의 학습자에게 학습과정에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에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통해서 퇴직이라는 전환기 사건을 경험한 심리적 위기의 중년남성이 대학원 학습경험을 통하여 셀프리더십을 개발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퇴직에 따른 심리적 위기

퇴직은 직업적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으로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 전이되는 사회화 과정이다(George & Bearon, 1980). 그러나 Atchley(1997)는 퇴직의 개념을 공식적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고용 중단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심리학들도 퇴직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과도기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 없는 역할’이라 하였다. Guillemard와 Rein(1993)은 퇴직을 장애로 인한 노동의 끝이 아니라 나이로 인한 심각한 핸디캡이 원인이 되어 제시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의 퇴직에 대한 정의는 성장이나 생산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나 끝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인생에서 직업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

체성을 갖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일은 경제력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나 지인과 같은 사회적 지지력도 얻을 수 있게 한다(Mattern, 1993). 중년에 퇴직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중년남성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포함하기를 원한다. 특히 현재 베이비붐 세대인 중년남성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회에 큰 기여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성공으로 동일시해 왔다. 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직업의 정체성에 몰두해 있는 중년남성에게 그동안 존재하였던 역할이 없어진다면,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며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주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다.(LaBauve & Robinson, 1999; Lim, 2009).

Biladeau(2002)는 55~65세의 중년후기 남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중년후기는 성공적인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퇴직으로 이동을 준비하는 과도기이지만 아직은 자신의 직업정체성과 과업 성취에서 물러나는 것에 혼란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Kawachi(2008)는 51~61세의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여자의 40%가 퇴직 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에 대한 인식도 단순한 사건이 아닌 복합적인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퇴직연령의 사람 중 대다수는 직업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무력증을 표현한다. 또한 퇴직자의 1/3 이상이 자신의 퇴직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혜경(2003)의 연구에서도 퇴직자의 60%가 우울을 경험하고 27.2%가 심한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영향 요인분석에서 퇴직자의 우울 정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것은 일하고 싶은 욕구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역할 상실로 인해 퇴직에 대한 심리적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화용, 조병은, 2001; 이가옥, 이지영, 2005; 한혜경, 2003).

우리 사회가 점차 나이와 무관한 사회로 향하고 있으며 노년인구에 대한 긍정적 의미로 노년 인적자원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예측하고(Neugarten, 1979)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년기의 퇴직과 사회에 대한 탈 참여를 동등하게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 때문에 퇴직은 중년기의 자기효능감의 상실로 이끌며, 사회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usack & Thompson, 1999).

2. 성인학습자의 대학원 학위과정 특성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개방된 성인을 위한 정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학위과정에 등록된 성인 학생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50~59세 중년남성의 석·박사학위 졸업생의 수는 <표 1>과 같다. 2010년 석

사 졸업생은 약 110,000명, 박사 졸업생은 약 40,000명, 박사과정의 재학 인원은 3,264명으로 석사과정의 재학 인원 4,308명에 근접함을 보여 준다. 통계수치를 통해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간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50대 중년남성의 수가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50~59세 중년남성 대학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대학원 현황			
		졸업	재학	수료	중퇴
2000	석사 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53,545	41,537	1,692	9,556	760
	박사 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16,924	13,160	814	2,878	72
2010	석사 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137,974	113,147	4,308	17,593	2,926
	박사 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56,828	43,669	3,264	9,350	545

출처: 통계청(2001, 2011), 인구총조사.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입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증가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을 우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년기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중년의 고등교육 진입과 관련한 대부분 연구에서 중년기 성인은 자아실현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변화로 인해 자기성장, 정체성의 재구성, 주관적 행복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Hatcher et al., 2007).

성인이 경험하는 학습은 그동안 형성되어 온 자신의 정체성, 신념과 태도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이전의 학습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퇴직 단계에 있는 성인학습자에게 이 시기는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성장의 시기일 수 있다. 동시에 성인학습자는 그동안 살면서 생각해 보지도 못한 리더십 역할을 학습을 통하여 발휘하려 한다. 그들은 학습에 몰입할수록 자신의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통제하며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여 나아갈 것이다(Cusack & Thompson, 1999).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의 개념은 기존의 리더십 개념과는 달리 자기통제와 자기관리를 토대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anz, 1986; Neck & Manz, 2010). 다른 리더십 개념이 외적 관점이라면, 셀프리더십의 자기영향력 과정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끌어 내는 내적인 관점으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한 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Manz & Neck, 2004). 그러므로 셀프리더십의 개발은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고, 자아완성을 위한 학습과정이다(Manz, 1986).

성인은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기 위하여 내적·외적 자기통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목표 중심적 행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목표의 영향을 받으며, 성인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행동을 항상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셀프리더십은 동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 중심적 전략, 통제와 자기조절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자신을 스스로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자율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보다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Manz & Sims, 1980).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의 성과에 도달하려고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풍부한 심리적 이론을 사용한다(Neubert & Wu, 2006).

셀프리더십 개발프로그램이 중년기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김선(2012)은 프로그램에 2년간 참여해 온 중년기의 연구 참여자 114명 가운데 75%가 프로그램 참여한 생의 의미가 공허상태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62.3%가 생의 의미에 대한 공허상태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파산 위기에 있는 미국 항공사의 사원을 대상으로 한 Neck(1993)의 연구 결과에서도 셀프리더십 개발 훈련에 매주 참여한 결과 성공이나 기회를 생각하는 것에 관한 신념과 가정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었으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낙관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Neck와 Manz(1996)의 연구에 의하면 셀프리더십 개발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소의 조절을 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자신이 정한 목표가 성공했느냐 또는 실패했느냐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삶의 질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Aspnes, 2008).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급속한 변화와 경쟁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셀프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퇴직 후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중년남성의 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행동을 사회 문화적 맥락과 결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에서도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안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분석도구와 기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과정에 대한 추상적, 분석적 구조인 이론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이론을 통해서 구안하려는 이론은 연구자가 현장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관심 현상의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설명력을 갖는 이론으로서, 연구주제와 관련한 현상을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잘 부합하면서 이론화가 원활하도록 이론적 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연구 현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면담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후 대학원 학습을 시작한 기간이 2년 이하인 50세 이상 59세 이하 중년남성 7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박사 졸업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3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고려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나이가 50~59세에 해당하는 중년남성으로 규정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이들의 경험이 이전의 세대 경험과는 다를 것으로 보고 퇴직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기업과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퇴직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상태를 경험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권고퇴직이나 예정된 임기에 퇴직을 맞이한 경우, 자신의 환경적 요인으로 퇴직을 경험한 경우를 한정하지 않고 퇴직 후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수학과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졸업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중년남성이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셀프리더십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현황과 특성

참여자	연령 (2014년 기준)	학위과정	퇴직 시기	주요 경력
김광복	58	박사과정 4학기	2008년	기업교육 담당자
김경진	56	박사과정 2학기	2013년	본부장
박순구	52	박사 졸업	2010년	건설회사 팀장
박훈철	56	박사과정 3학기	2013년	본부장
오현수	57	석사과정 4학기	2013년	지점장
이민수	51	박사과정 2학기	2008년	기업교육 담당자
홍정태	52	석사과정 3학기	2010년	재무팀장

주: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으로 표시함.

2. 자료수집과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이며, 문헌고찰을 보충하여 활용하였다. 면담은 심층면담으로 중년남성의 퇴직 후 심리적 위기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고, 문헌고찰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일정은 연구자가 직접 전화나 메일로 잡고,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등 연구 참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등 사전 활동을 통하여 준비하였다. 면담은 각 1회에서 2회 정도 시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이 내용을 각각 그대로 녹취하여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면담 시 받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을 그때마다 메모하여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사된 면담 내용에 대한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2001)이 근거이론의 도출을 위해서 제안한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한 후에 바로 일차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추가로 수집할 자료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여 자료를 다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에서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각 자료의 개념 및 범주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범주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은 현상

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연구 참여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제나 쟁점, 관심사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2001). 가령 중년남성의 퇴직 후 심리적 위기의 본질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할 때, 퇴직 후 갖게 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는 조건적 배경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코딩 후에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각 범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연결하는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은 맥락조건, 인과조건, 중재조건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Strauss & Corbin, 2001).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을 구성한 후, 모든 범주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여 다른 범주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관 지어 이론을 통합하고 정교화하는 선택코딩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Merriam(2009)의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자료, 면담자료, 메모, 문서 등 복수의 자료 수집방법을 통한 삼각검증법을 이용하였다. 면담과 메모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어떠한 속성과 차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목적에 더욱 적합한 자료를 현장에서 추가로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확인법이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2명을 선정하여 연구결과의 주제가 제대로 참여자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와 함께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동료 검토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문 동료들에게 본인의 연구에 관한 해석 방법, 연구목적과의 관련성, 제시한 연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여러 차례 검토를 요청하고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어 사실에 충실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이다. 연구자는 50대 중년여성으로서 늦은 나이에 대학원 학습에 참여하였기에 중년기 학습경험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동료와 퇴직에 대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중년기 퇴직과 관련된 서적과 논문 등으로 채우려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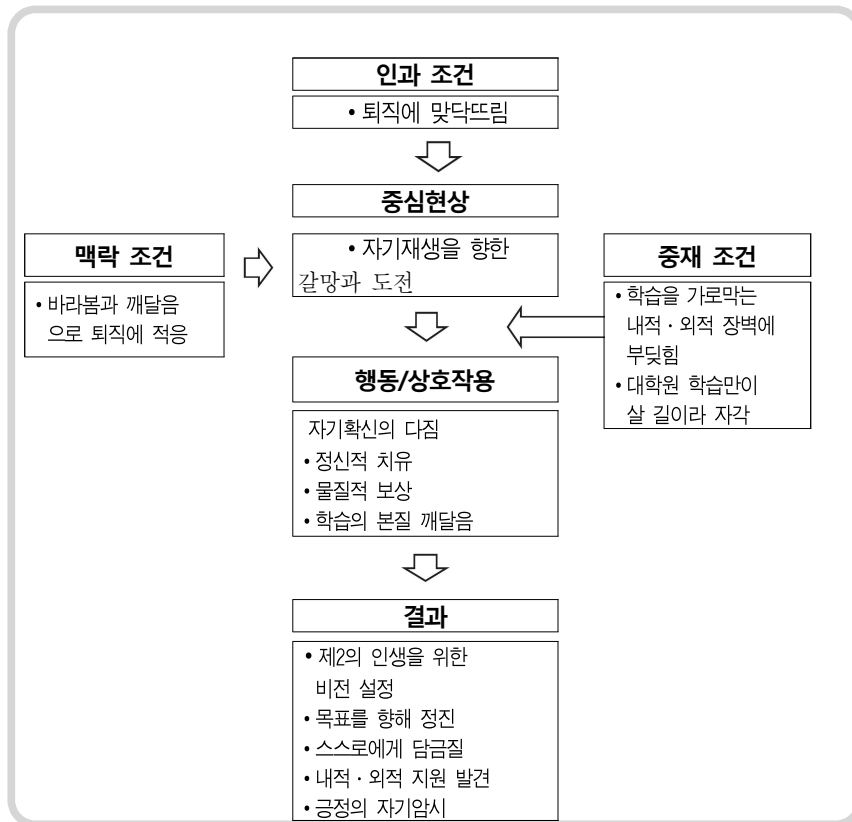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의 면담자료와 메모를 근거로 비교분석 및 탐구과정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개념을 압축하고 묶어 범주화하여 범주의 속성의 차원을 발전시켜 코딩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개방코딩 결과

구분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 조건	퇴직 전 나의 모습	성과에만 매달리는 모습	말 못할 경쟁률을 이겨냄
		퇴직에 대한 추상적 인식	현실적으로 실감나지 않음
		퇴직을 준비하기 어려움	나보다 조직성과가 우선
	퇴직에 맞닥뜨림	심리적 위기에 처함	직격탄을 맞은 느낌
		나에 대한 원망과 울분	나 자신이 너무 미움
		사라진 존재감에 의기소침	고립감/용도가 다 된 느낌
맥락 조건	바라봄과 깨달음으로 퇴직에 적응	퇴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
		새로운 삶을 위한 시행착오	돌파구를 위한 도구 찾기
		나에 대한 이해	잘 할 수 있는 일 찾기
중심 현상	자기재생을 향한 갈망과 도전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타진	전문적 소양의 필요성
		타인에게 끌려가지 않는 삶	내가 주도하는 인생
중재 조건	장벽에 부딪힘	학습의 방해요소	나이, 자녀교육비, 건강
		타인의 부정적 인식	공부해서 뭐하냐고 함
	학습만이 살길이라 자각	학습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함	마지막 나의 선택
		학습을 지속하는 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행동/ 상호 작용	학습을 통한 자기확신	정신적 치유	내 인생을 위한 버팀목
		물리적 보상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가치 창조
		학습의 본질을 깨달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함
결과	학습을 통해 자신안의 힘을 깨달음	제2의 인생을 위한 비전 설정	후반기 인생에 대한 틀
		목표를 향하여 정진	스스로를 통제하며 정진
		스스로에게 담금질	학습의 체적 필요
		학습을 지탱할 수 있는 지원발견	나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
		긍정의 자기암시로 신념을 다짐	다시 찾아온 기회라 생각함

2. 축코딩

근거이론을 생성하기 위하여 주제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조건과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안한 패러다임은 근거이론 생성을 위한 분석적 틀로 각 범주의 관계를 규명하고 연결하여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보여 주기 때문에 실제 현상에 관여하는 맥락과 그 전개과정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퇴직 후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중년남성의 대학원 학습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은 [그림 1]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1] 중년남성의 대학원 학습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모형

가. 인과조건

인과조건은 사람들의 행동양상이 중심현상처럼 발생하거나 전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일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인과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퇴직 후 중년남성이 경험하는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과조건은 ‘퇴직에 맞닥뜨린 나의 모습’으로 퇴직 통고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였던 퇴직이 현실로 다가오자 자괴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퇴직에 대하여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심지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회의감도 가지게 된다. 갑자기 닥친 퇴직은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경제적 고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가령 김광복은 지금까지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오던 가족이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생활에까지 커다란 영향이 미치게 되자 그 불안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였다.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나가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마 그 몇 년간 받을 스트레스를 한 달 동안에 다 받은 거예요. (김광복)

그래도 직장 안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민을 한 적이 꽤 있죠. 그런데 그런 거와는 차원이 틀리죠. 이제 나는 실직이다. 나는 직업이 없다. 난 뭐로 어떻게 살 거냐. 단 1퍼센트도 생각 안 한 사람이 갑자기 그걸 생각하러니... (김경진)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소속이 없어 존재감의 상실을 느끼게 되며 의기소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매일매일 직장으로 일찍 출근하며 회사의 통제하에 살아가던 일상의 중심이 된 생활에서 갑자기 타의에 의해 역할을 상실하자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김광복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도 모두 놓아 버려야 하니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까지 든다고 하였다.

세상이 다 나를 떠나보내는 거 같죠. 실제 그래요. 제가 딱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제일 얻는 게 뭐냐면, 정보의 단절이 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고립감. 말도 못 하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광복)

그들이 퇴직이라는 사건에 어떠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거나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갈망을 갖거나 도전을 시도하는 노력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셀프리더십 개발과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묘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맥락조건

맥락(contextual)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교차하여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면담을 통해 도출된 맥락 조건으로 첫째, 퇴직을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며 퇴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퇴직 후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먼저 퇴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퇴직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며 이 문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로써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김정진은 자신에 대한 질책과 후회, 아쉬움과 섭섭함을 접어두기로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오현수는 “그동안 조직이라는 큰 보호막이 사회로부터 우리를 건사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여행)길에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봤는데. 한결같이 과거 지위보다는 하향 조정하고, 자기 몸을 사회에 대해서 낮추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 야! 저렇게 적응을 해가는구나. 나도 빨리 내 몸을 저기다 맞춰야 되겠다. (오현수)

둘째, 새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시도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퇴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하려 노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일고 있는 사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오현수는 국공지도사 자격증과 한자 자격증에 도전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아마 사회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홍정태도 매일 도청과 시청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체크하며 면접도 몇 번씩 보았다고 하였다.

셋째,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퇴직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다. 가족을 위하여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꿈에 대하여 떠올리며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며 관심분야를 찾기 시작하였다.

내 직장생활 30년을 되돌아보자. 저는 일단 막 다 적었습니다. 그래 놓곤 하 없없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게 진짜 너가 좋았던 거냐? 우선순위를 한번 매

거 보자. 정말 너를 행복하게 했던 게 뭐냐. 그리고 거의 밤을 샜죠. 새벽쯤 되니까, 두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김경진)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바라보고 깨달으면서 서서히 퇴직에 적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다.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일련의 행동/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자기재생을 향한 갈망과 도전’으로 나타났다. 오현수는 ‘인생 1라운드가 끝났다’로 표현하며 “남자는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며 아직도 내가 가능성이 있고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 하며 자기 재생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가령 김광복은 강의 경력을 살려 기업 강사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강의 제안서에 자신의 경력란을 채우는 데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제 프로포절을 쓰기 위해서 제 소개를 쓰다 보니까 칸을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강의 경력이라고는 딸랑 요 회사뿐이고 저서는 공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의 프로포절을 하니깐 백이면 백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칸을 메워야 되겠다. (김광복)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타진하면서 대학원 학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억제와 통제 속에서 타인에 끌려갔던 삶과 달리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에 대한 갈망을 가졌다.

모든 걸 억제를 받고 통제 속에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이만한데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정도 나이고, 이 정도 경험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룰에 크게 벗어나진 않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오현수)

그동안 조직 내에서 내 주도하에 간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 뜨면 회사에 나가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어디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걸 앞으로 불과 12년 동안은 내 주도적으로 살아 보자. (박훈철)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제2의 직업을 위한 새로운 경력 만들기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또한 위기의 중년남성이 이러한 전환기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끊임없이 자기 재생(self-renewal)을 향하여 갈망하고 도전한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라. 중재조건

중재(intervening) 조건은 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들을 의미하며 특정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2001).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주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작하게 되지만 학습을 가로 막는 내적·외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고령자를 사회에서 받아 줄 것인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김광복은 새 학기 등록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한창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자녀의 교육비와도 맞물리게 되어 학습을 계속하는 데 더욱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석사과정 2학기를 등록 하느냐 마냐 고민에 빠졌어요. 굉장히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뭐가. 무슨 것인가. 이 칸을 채운다고 내가 뭐 되나. 칸을 채운다고 이 고령자를 써 주겠는가. 애들이 재수하고 공부한다고 난리인데 내가 수입도 없는데... (김광복)

한편, 타인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외적 장벽도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로 어려움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직 학습에 대한 목표를 정립하거나 실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데다 외적 방해요소까지 중첩되어 주춤하게 되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땐 나이 먹어서 내가 이걸 배워서 뭐할라고. 친구들로부터 “야! 내가 공부함으로써 대학생들 젊은 애들이 일자리를 잃어.” 이런 어떤 얘기도 듣곤 했지만... (이민수)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에 무언가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각오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시작하였지만, 사회가 아직은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학습과정 중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의가 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습만이 살 길이라는 자각이 상호작용의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절실함이 학습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60에 내가 박사를 졸업했다 누가 나를 써 주겠어요. 안 써 주면 어떡할 거야. (웃음) 그럴 때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죠. 만약에 그렇다 해서 내가 안 하면 기회가 전혀 없지 않나? 내가 0.1%라도 기회를 만들어 갈 뿐이지. (김광복)

김광복의 이야기처럼 미래의 길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마. 행동/상호작용

행동/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 전략은 현상, 문제, 상황에 대처하거나 이를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이를 통해 현상을 조절하고 수행하게 된다 (Strauss & Corbin, 2001). 연구 참여자들은 중심현상으로 인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을 선택하며 셀프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취하는 행동/상호작용 전략은 '자기확신의 다짐'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심리적 위기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치유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결국 학습을 통한 치유가 자신감으로 이어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광복은 "얼굴에 활기가 생겨요. 옛날에는 얼굴이 찌들었는데 요새는 얼굴에 활기가 차요. 목표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며, 학습과정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에 큰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학습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기쁨, 즉 학습의 진수를 경험하며 내면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학습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력만을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의 전환점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욕구가 모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배움에 대해서 평생학습... 이게 삶의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배운다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나이가 들고 이리면서 보이는 현상도 현상이지만 뭔가 내면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말이에요. 가슴에 와 닿는다 말이에요. (김광복)

또 다른 선물을 받은 거죠. 직장을 잃었지만 정말 아주 뼈저리게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된거죠. 왜냐 그걸 미리 준비했으면 그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값이는 그렇게 깊어지지 않는거든요. (김경진)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습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력만을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의 전환점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위를 통한 물리적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자기확신을 가졌다. 대학원 학습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어 주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대학원 학습과정이 헛되지 않고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미래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자기확신을 갖게 되었다.

바.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행동/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행동/상호작용의 전략과 중재적 조건에 의해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난 성과나 결과를 말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학습을 통한 자기확신에 대한 다짐의 결과로 셀프리더십을 개발하게 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후반기 인생을 위한 비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젊은이만 꿈을 가질 게 아니라 은퇴하는 중년들이 진짜 꿈을 가져야 한다고 뭐가 꿈이냐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그런 회의감을 잡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의 명확한 목표죠. 이게 대충이 아니라 확실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광복)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대학원 학습을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실천적 행동을 하였다. 홍정태는 주말 아침 10시에 도서관에 가면 밤 11시까지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된다고 하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통제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자기차별이 가지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기 위하여 자신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스스로 담금질 하는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습을 지탱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적·외적 자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가치 있는 보상을 스스로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타인에게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을 통해 자기만족감과 위안을 얻기도 하였다. 김경진은 지나온 30년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30년에 대해서는 주위에 롤모델이 없어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는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하여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며, 자신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일조하고 싶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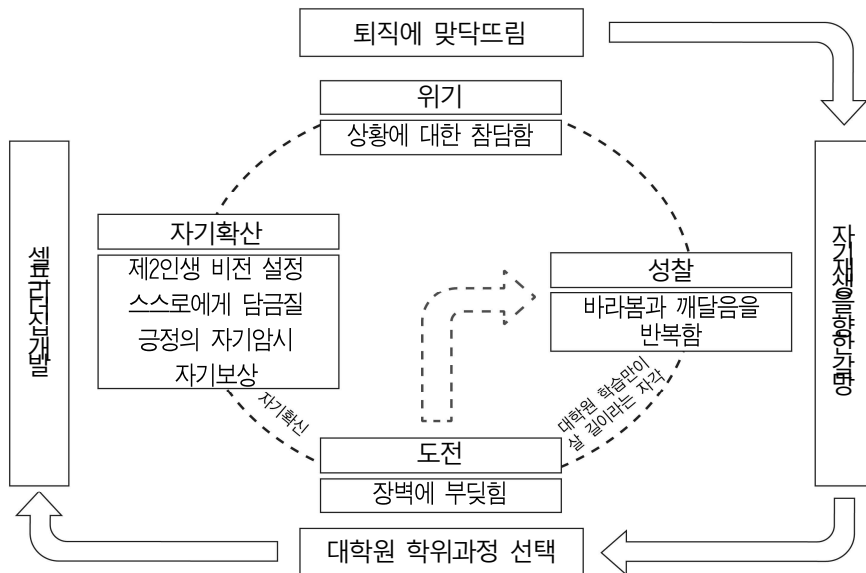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꿈과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 기회를 보잖아요. 가다 보면 그 중간 중간에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김광복)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목표를 향하여 장애요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기회요인을 찾는 긍정의 자기암시를 통해 신념을 다짐하였다. 이것은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 사고 패턴을 갖는 것이다.

3. 선택코딩

근거이론을 제안하기 위하여 페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핵심범주를 선택하며, 선택한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관련짓고 통합하는 선택코딩을 하여야 한다(Strauss & Corbin, 2001). 축코딩을 통해 밝혀진 범주들이 선택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론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자기재생의 노력'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 후 대학원 학습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과정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기로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셀프리더십 개발은 퇴직에 직면하면서 심리적 위기 상황 단계에서 출발하게 되며, 성찰의 단계를 거쳐 자기재생을 향한 갈망 단계, 대학원 학위과정을 선택하게 되는 도전 단계, 대학원 학습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함과 학습을 지속하는 힘을 경험하며 대학원 학습만이 살길 이라고 자각하게 되는 자기확신 단계를 거쳐 자기안의 힘을 깨닫게 되는 자기확산의 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이 개발된다. 그러나 대학원 학습과정 중에 만나는 내적·외적 장벽에 부딪히면서 성찰의 단계로 돌아가 다시 도전과 자기확신 단계를 거쳐 자기확산 단계의 과정을 반복 순환하게 된다.



[그림 2] 퇴직 후 대학원 학습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모형

가. 위기

퇴직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위기’ 상황은 사건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단계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리적 압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성과에 매달리어 퇴직 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에 맞닥뜨리며 감당하지 못할 심리적 위기 단계를 경험한다. 이것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단어로 묘사되어 퇴직에 대한 추상적 생각과 실제적 경험이 매우 다름을 보여 준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으려 이력서를 준비하지만 칸을 채우지 못하면서 침담함을 맞보기도 한다.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섭섭함을 접어 버리고, 진작 퇴직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내가 여태껏 잠자고 있었구나!’라고 묘사하며 자괴감을 보여 주기도 한다. 급속한 생활의 변화는 어디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자신감이 없어진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떨어진 꼬리표’로 인해 만나는 사람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정보의 단절로 이어져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나. 성찰

퇴직이라는 사건에 직면하면서 전환기적 과정이 필요하다. ‘성찰’은 퇴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자신이라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한다. 성찰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집념으로 절망으로 방황하던 것을 접고 일상에 돌아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바라봄과 깨달음의 반복’을 통해 아직 사회에 가능성이 있으며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모색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재생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떠올려보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보기도 한다.

이처럼 성찰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위한 자기재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며, 이를 위해 제2의 직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집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기재생을 향한 갈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며 지금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임을 자각하게 된다.

다. 도전

도전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던 중 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하여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도전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자녀와의 교육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중년에 시작한 학습으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중년의 학습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인식에 어려움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후반기 인생을 위한 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회의감을 잡아 줄 수 있는 확실한 목표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과거 젊었을 때 선택한 직장은 선택의 여지없이 택하게 된 것이라면 남은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못 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 또한 그들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재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인식하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문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가진다.

라. 자기확신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함'이라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재생을 향한 갈망'이라는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자기확신의 다짐'이라는 전략을 수립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에 안착할 수 있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로서 남은 인생 설계의 버팀목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학습을 통하여 내면의 갈등과 같은 불안함 마음이 희석되어 위안 받게 되며,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통되는 느낌을 가진다.

또한 그들은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감으로 활기를 띠면서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물질적 보상의 자기확신을 가진다. 힘겨운 학습 방해요소를 이겨 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는 절실함 때문이다. 퇴직자를 위한 강사가 되기로 결심한다든가, 지금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비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통제하는 엄격함 속에서도 새로운 학문에 접하게 되면서 학습 자체가 주는 즐거운 경험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년에 경험하는 학습을 통하여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배움의 본질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

마. 자기확산

마지막으로 자기확산의 단계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가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통제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셀프리더십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대학원 학위과정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제2의 인생을 위한 비전 설정을 시작으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여 나아간다. 그들은 대학원 학습과정에 몰입하기 위하여 사적인 시간을 모두 배제하여 묶어 버리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학업에 몰두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습과정을 지탱할 수 있는 자구책도 마련하여 학습으로 지친 삶에 내적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도전의욕을 불어넣으며 세상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긍정의 자기암시로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그들은 엄격한 자기통제를 통해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며 미래 세계에 대한 안목과 인적 네트워크의 힘과 같은 긍정의 효과를 얻게 되면서 자기확산을 이루어 낸다.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퇴직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상태에 있는 중년남성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퇴직으로 인한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이다. 중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같은 중년기 발달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퇴직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따른 위기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이다(Arcus, Schvaneveldt & Moss, 1996). Miller(1965)에 의하면 중년기 남성이 직업으로 인해 위기를 경험하였을 때 심리사회적 기능이 무너지며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외로움과 소외감에 직면하고 이는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런 역할의 상실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우선순위로 두었던 목표와 가치관을 뒤흔들어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방황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그들은 전통적 성역할을 습득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퇴직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막막함’, ‘열등감’, ‘자괴감’, ‘피해의식’, ‘아쉬움’으로 표현하였다. 인생의 절정 시기에 직면한 퇴직이라는 사건은 이전의 행복했던 삶을 와해하며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게 하였다.

한편, 오늘날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년기의 기간도 늘어나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인식이 여가생활로 보내는 것보다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심주제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결같이 그들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혜경(2003)의 연구에서 퇴직자의 우울 정도를 예측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것은 일(취업)하고 싶은 것이었으며, 그 정도가 클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부합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Atchley(1997)는 퇴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퇴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년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퇴직자를 사회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중년남성의 자기재생을 향한 갈망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판적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아직은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자신의 열망을 인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년남성 대부분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로써 사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자신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베이비붐 세대인 현재의 중년은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높아 노후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과 그에 상응하기를 원하며 남은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사회 참여에서

찾으려한다(이경희, 박성희, 2009). 그들은 퇴직이 주는 의미를 단순히 노후의 여가선용이나 생활의 안정에 도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업 능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 전환의 계기로 인식한다(최돈민 외, 2001). 연구에 참여한 중년남성은 전환기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삶에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그 동안 쌓아 온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퇴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퇴직을 보는 시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여건이나 문화로 인해 퇴직 후의 문제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퇴직을 새로운 세계를 위한 출발의 시기로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들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셋째, 중년남성의 대학원 학습과정의 의미이다. 본 연구의 중년남성은 계속 사회에서 일하기 위한 가교의 역할로 학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대학원 학위과정에 도전하게 되었다. 전문학위 수여를 전제로 하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 하므로 다른 어떤 학습과정보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학습을 통한 성찰을 수반하여 궁극적 목적이었던 도구적 목적이 변화되어 학습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며 학습 본질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었다. 이것은 정서린(2012)의 대학원 준고령 학습자의 경험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논의된 학습과정 속 '성찰과정'을 거듭 경험하면서 학습의 의미가 내적으로 자기를 향한 과정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의 시작이 자신의 활동을 다른 것과 결부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는 외적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그 주체가 활동 안에 몰입하여 보람과 희열을 향유하려는 내적 의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넷째, 셀프리더십 개발을 통한 성장과 변화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위과정의 도전으로 셀프리더십 개발을 시작하였다.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자아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들은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자신의 자원으로 이끌어 긍정적 결과로 이끌어냈다. 일반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효과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동기부여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발전하게 도울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장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Tedeschi & Calhoun, 1996). 연구 참여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다가온 위기 상황을 기회라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구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정신적으로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들은 자

신의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자기 인생의 전 부분에 걸쳐 정신적으로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대학원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동안 중년 전환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은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무엇보다 학습으로 인한 자신의 성숙해진 모습에 대한 자기확신으로 세상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게 된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동기를 만들도록 도와주며, 학습의 다양성과 가치를 경험하며 자기 안의 힘을 깨닫게 하면서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전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주어진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는 리더십 과정에 노출되어 진다.

본 연구의 함의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중년남성은 고학력과 경제능력을 보유한 집단으로 퇴직 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직업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남성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집단으로서 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하여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일부 집단은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중년기 교육 소외 집단을 위한 연구대상 참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의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 성인학습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전통적 퇴직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 퇴직 후 새로운 개발의 기회와 가치 있는 역할을 제공하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성인학습자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대학이 가지는 실천적 측면을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셀프리더십의 개발 효과가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자기통제력과 자기규제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직 후 중년남성이 사회 주변인으로 머무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여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욕구, 사회적 욕구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셀프리더십 개발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기숙(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고화정(2013). 한국 은퇴자 유형화 연구: Mixture Model을 활용하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곽인숙, 홍성희, 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 김선(2012). 셀프리더십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중년기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연선(2009). 셀프리더십이 팀워크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급호텔 Wine & Dining Restaurant 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동수, 이희영(2002). 자기유능감과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작용. **인사·조직연구**, 10(1), 135-159.
- 성계순(2011). 초등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또래지위, 갈등해결전략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송동립(2004). 중년기 남성의 위기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146, 90-112.
- 신화용, 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155(1), 39-51.
- 이가옥, 이지영(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 이경희, 박성희(2009). 노인의 학습경험에서 도출한 노인완성학습으로서 노인 학습개념에 대한 질적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1), 1-29.
- 이미섭(2015). 퇴직 후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중년남성의 대학원 학습을 통한 셀프리더십 개발과정 탐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용엽(2012). 셀프리더십이 직무몰입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과 삶의 균형 부분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정서린(2012). 대학원 준고령 학습자의 경험학습 과정 탐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채성오(2013.1.24). 정년퇴직 체감연령 '48.8세'. 데이터뉴스.
- 최돈민, 백은순, 김태준(2001). 퇴직예정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교육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 28(1), 257-281.
- 최태산, 박혜경(2011). 중년남성이 지각한 자기의식과 성역할 스트레스가 중년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2(3), 931-944.
- 통계청(2001).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통계청(2006).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통계청(2011).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통계청(2013). 2012년 인구동향조사.
- 하순복(2007). 셀프리더십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혜경(2003). 조기퇴직자의 우울감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81-101.
- 홍아정(2009). 학습을 통한 자아의 재구성: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경험이해. **Andragogy Today**, 12(4), 185-218.
- Andrew, L. (1996). Development and personal growth: A personal reflection. In J. Walker (Ed), *Changing concepts of retirement*. Brookfield, VT: Ashgate.
- Arcus, M. E., Schvaneveldt, J. D., & Moss, J. J. (1996). **가족생활교육의 기초**(이정연 · 장진경 · 정혜정 역). 서울: 하우. (원저 1993년 출판)
- Aspnes, A. K. (2008). *Self-regulation before and after a developmental transition: A study of adaptive goal change in retir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 Atchley, R. C. (1997).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8th ed.). Belmont, CA: Wadsworth.
- Biladeau, M. (2002).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en at later mid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Bryant, K. (2008). *The impact of depression on middle-aged african american men: A grounded theory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zusa Pacific University.
- Cusack, S. A., & Thompson, W. J. A. (1999). *Leadership for Older Adults: Aging with Purpose and Passion*.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George, L. K., & Bearon, L. B. (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Meaning and Measurement*. New York: Human Sciences.
- Guillemard, A. M., & Rein, M. (1993). Comparative patterns of retirement: Recent trends in developed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469-503.
- Hatcher, S., Hardy, E., Waddell, M., Hiltz, C., & McGregor, S. (2007). *The intensity and sequelae of midcourse corrections and midlife review for participants in a distributed learning doctoral program*. Unpublished Manuscript. Fielding graduated University at Santa Barbara, CA.
- James, A. M. (2009). *Self-leader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An investigation of theoretical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 Kawachi, J. A. (2008). *The uncertain path to retirement: A study of retirement patterns, Intentions and perceptions among older workers in the 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LaBauve, B. J., & Robinson, C. R. (1999). Adjusting to retirement: Considerations for counselors. *Adultspan Journal*, 1(1), 2-12.
- Lim, Y. H. (2009). *Understanding Identity: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aptation and learning of the singapore male in retir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zusa Pacific University.
-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85-600.
- Manz, C. C. (1992).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anz, C. C., & Neck, C. P. (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 Manz, C. C., & Sims, H. P. (1980).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 361-367.
- Mattern, J. M. (1993).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A study in continuity and*

-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ler, H. L. (1965). *Participation of adults in education, a force-field analysi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 Neck, C. P. (1993). *Thought self-leadership: The impact of mental strategies training on employee cognitions, behaviors, emo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Neck, C. P., &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 Neck, C. P., & Manz, C. C. (1996). Thought self-leadership: The impact of mental strategies training on employee cognitions, behaviors, affe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 445-467.
- Neck, C. P., & Manz, C. C. (2010).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Neck, C. P., Stewart, G. L., & Manz, C. C. (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3), 278-302.
- Neubert, M. J., & Wu, J.-C. C. (2006). An investigation of the generalizability of the Houghton and Neck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o a Chinese contex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360-373.
- Neugarten, B. L. (1979). Time, age, and the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7), 887-894.
- Osborne, J. W. (2012).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6(1), 45-58.
- Strauss, A., & Corbin, J.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저 1998년 출간)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Tsao, T. C. (2003). *New models for future retirement: A study of college/university linked retirement commun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논문 접수 2015. 08. 05 / 수정본 접수 9. 15. / 게재 승인 09. 24.
- 이미섭: 고려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평생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관심분야는 평생교육, 리더십 등임.
- 최은수: 숭실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언어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및 철학(교육학전공) 박사학위 취득. 현재는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평생교육 정책, 평생교육 경영, 평생교육 리더십 등임.

Abstract

**Midlife Men's Self-Leadership Development Process
at Graduate School while Encountering
Psychological Crisis after Retirement**

Lee, Mi Sup(Soongsil University)

Choi, Eun Soo(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midlife men's self-leadership development process at graduate school while encountering psychological crisis after retirement. This study adopted a grounded theory and chose seven middle aged men from fifty to fifty-nine, all of whom are doing or already completed graduate school while encountering psychological anxiety after retirement. Midlife men experienced psychological anxiety after retirement because they had only superficial and abstract perception about retirement. Through reflection and their realizing their inner values, they determined to take a graduate course in hopes of self-renewal that creates reciprocal bonds between society and themselves. They could confront financial burdens, negative perspectives from surroundings and skepticism toward acceptance to society due to their age. Through the learning experience of graduate school, midlife men recovered from mental chaos, assured to get material rewards and realized quintessence of learning. They developed self-leadership through graduate studies. They set their final goal, pledge their beliefs through self-suggestion to achieve performance enhancement. This study showed that self-leadership development was internal process not external process, and individuals to extend their competence through self-defocusing from self-assurance.

Key words : Midlife men, Psychological crisis, Retirement, Graduate school. Self-leadership